

부당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의 문화 차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
우송대학교

류 승 아[†]
경남대학교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인식, 감정 및 행동에 다양한 방식을 보인다. 본 연구는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에서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인식, 감정 상태, 및 행동 양상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새로운 자기관 모델인 주체성-대상성-자율성 모델을 이용하여 국가마다 나타나는 자기관과 행동양상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317명(한국인 87명, 중국인 71명, 일본인 80명, 미국인 79명)이었다. 4개국 모두에서 부당한 상황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이나 책망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국가별로 그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부당한 상황에 대한 감정 상태 중 분노는 한국인이, 불쾌와 관계정서는 중국인들이, 그리고 당혹감은 일본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행동 영역에서는 아시아 3개국은 대부분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미국인은 대부분 직접적인 표현을 하였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한국인은 주체성 자기관이 높았고, 중국인은 주체성과 자율성 자기관이 동시에 높았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대상성 자기관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았고, 미국은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억울과 관련한 문화적 정서에 대한 함의와 새로운 자기관 모델의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억울, 문화적 정서, 대처, 자기관, 주체성-대상성-자율성 모델

[†] 교신저자 : 류승아,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동
Tel : 055-249-6412, E-mail : ilcheu@gmail.com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억울하다’는 말이 있다. ‘억울’은 한자로 抑鬱이라 쓰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억눌리고 침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보통 우울(depression)로 옮겨진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억울을 사용하는 맥락은 우울과는 전혀 다르다. ‘억울’에 ‘하다’가 붙은 ‘억울하다’의 경우, 국립 국어원의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사람이 처한 사정이나 일 따위가 애매하거나 불공정하여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다’라고 풀고 있다. 우울(憂鬱)이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억울에는 답답하다는 뜻과 더불어 분하다는 정서가 뒤따른다. ‘분(憤)하다’는 스스로 인정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불쾌, 불행한 사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데서 오는 원망스럽고 마음 아픈 감정이다(최상진, 이요행, 1995). 따라서 억울하다는 말은 자신이 겪은 어떤 일이 불공정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 된다.

즉, 억울은 자신이 경험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뜻한다. 상대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부당할 때, 혹은 피할 수 있었던 일을 손해 봤을 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문화 보편적인 현상이다(Averill, 1983). 그렇다면 억울을 곧 분노(anger)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어에는 억울 외에도 ‘화나다(hwa-nada)’, ‘분노하다(bunno-hada)’, ‘노하다(no-hada)’ 등 분노(anger)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억울을 단순히 분노와 같은 뜻이라고 규정하기 보다 ‘부당한 사건에 대한 분노’로 한정지어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국문화에서 억울은 주로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우선, 억울은 화병의 원인으로 언급되어 왔다(민성길, 1989; 조흥건, 1991; 최

상진, 이요행, 1995). 화병(火病, Hwa-Byung)은 한국의 문화적 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노 증후군(anger syndrome)”으로 볼 수 있으며, 증상에는 불면증, 피로, 공황, 곧 죽을 것 같은 공포, 불쾌한 정동, 소화불량, 거식증, 호흡 곤란, 심계항진, 일반화된 통증, 상복부에 덩어리가 있는 느낌 등이 포함된다(DSM-IV-TR, 2000)¹⁾. 화병은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조흥건, 1991). 정신의학에서는 화병의 원인을 분노와 같은 감정의 억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민성길, 1989; 이시형, 1977; 이시형, 조소연, 이성희, 1989), 억울로 인한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는 데서 화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억울과 관련된 또 한 가지 문화적 현상은 자살이다. 김효창(2010)은 서구사회에서는 억울함이 불안과 우울을 유발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억울함과 화가 자살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한국에서는 정치나 경제 스캔들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피의 혐의를 받은 후나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살을 하는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자살은 심리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국인들은 억울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선택을 감행한다. 이처럼 한국의 억울이라는 감정에는 분노나 답답함과 같은 개인 내적인 감정 상태만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나 심정, 상황 등을 알리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사회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의미나 기능이 존재함을 짐

1) 2013년 출판된 DSM(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판에서는 화병이 제외되었다.

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문화에서 ‘억울’이라는 정서는 특수한 맥락, 즉 억울을 유발하는 사건과 상황적 조건들을 수반하며 이러한 화나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대처할 것인가와 관련된 특수한 행위양식들과 연결된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정서를 문화적 정서라고 한다.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기본정서(예, 공포, 혐오, 분노, 슬픔, 기쁨 등)와는 달리 문화적 정서란 특정 문화권에서만 이해되는 정서들을 뜻한다(Ekman, 1972; Kitayama & Markus, 1994; Lutz, 1982; Mesquita & Frijda, 1992). 그렇다면 부당한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정서 또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이 느끼는 부당한 사건과 관련한 인지, 감정 및 행동 양식과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정서의 관점에서 억울, 즉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서의 구성요소인 인지, 감정, 행동양식 등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볼 것이다. 즉, 부당한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문화권마다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사건, 그에 따른 감정 및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행동방식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화 심리학에서 많이 수행되던 동서양 비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집단주의 문화 내의 다양성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을 포함한 4개국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정서 관련 요인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4개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문화적 자기관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문화적 정서의 이해와 표현

정서는 특정 대상 혹은 장면이 유발하는 생리적 각성, 느낌, 인지과정 및 행동에서 유발되는 신체 및 정신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정서가 문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왔다. 생물학적 또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정서는 뇌의 특정부위의 호르몬이나 자율신경계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간 종(種)의 생존을 위해 발달한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정서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에서는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서의 개별적 과정보다는 정서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정서의 언어적 표현과 이러한 표현들과 관련되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의 체계이다. 신경생리학적 접근과 인류학적 접근에서의 정서연구들은 정서라는 용어만 공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함의는 전혀 다른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정서의 보편성에 대한 답은 정서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정서의 보편성을 강조해 오던 전통심리학에서는 정서를 개인내적(intrapsychic) 정서로 이해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의 내용은 보편적이고, 범문화적이며, 생물학적으로 미리 결정된 자기유지 및 자기조절의 과정이기 때문에, 같은 정서를 경험할 때는 누구나 동일한 생리적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동일한 정서경험을 하게 된다는 입장이다(Buck, 1988; Ekman, 1972; Tomkins, 1984 등).

반면, 문화심리학과 토착심리학에서는 정서를 관계적 정서(interpsychic emotion)로 보고 인류학에서처럼 정서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서는 사회문화적 과정에 의해 영향받고 구성되는 것이다(Averill, 1985; Frijda, 1986; Harre, 1986; Kitayama & Markus, 1994; Markus & Kitayama, 1991; Shweder, 1993 등). 즉, 정서는 상호관계 속의 사람들이 명명하고 정당화하며 설득하는 문화적 및 대인적 산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서적 의미는 개인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결과로서 출현한 것이다(Lutz, 1988).

문화적 정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해석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기본 정서로 알려진 분노, 슬픔, 기쁨, 혐오 등을 유발하는 자극들은 별도의 해석 없이 명확하게 인식된다. 이들 기본 정서들은 유기체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적 정서는 이와 다르다. 이러한 정서들은 개체의 생존과는 일차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석이 없이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화적 정서를 스스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해석하는 반추적 사고(reflective thinking; 최상진, 2000)뿐만 아니라 사회적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확인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타인들의 반응, 즉 사회적 피드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Zabinsky & Valsiner, 2004). Schachter(1971)와 Lazarus(1984) 등에 의해 제안된 인지평가이론에서도 정서는 생리적 반응뿐 아니라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즉, 정

서 및 정서적 경험은 평가되는 환경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생성(혹은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정서의 해석은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완성된다. 정서의 경험을 순전히 개인 내적 과정을 간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서의 이해 과정은 문화적 틀 안에서 정당화 되어야 한다. 개인에 따라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해석들이 온전히 자의적일 수는 없다. 특정 상황맥락에서 정서를 경험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문화적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김정운, 2001; Mauro, Sato, & Tucker, 1992). 즉, 주관적 정서경험이라 해도 해당 문화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의 경험과 해석의 틀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다시말해 어떤 정서를 유발한 상황과 생리적 반응에 대한 해석에는 언어의 역할이 지대하다. 정서는 언어를 통해 인식되고 또 표현되는데 어떤 문화에서 어떤 정서에 대한 특정한 용어가 있다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 정서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Wierzbicka, 1995).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된 문화적 정서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의 질이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정과 sympathy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서적 경험의 내용이 같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이라는 정서는 한국의 문화적 정서체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과 sympathy의 비교는 정과 sympathy가 개념화된 문화의 정서경험 체계를 이해한 뒤에 가능하다. 독립적인 정서적 경험이나 개별적인 정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김정

운, 2001).

따라서 문화적 정서의 연구는 특정 정서를 뜻하는 단어가 해당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된다. ‘수치심’에 대한 미국인과 중국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단어들을 100여개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수치심’을 수줍은 성격, 그것을 불러일으킨 상대에 대한 분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및 공동체 규범을 어기는 행동 등의 다양한 단어들과 연관시켰다. 반면, 미국인들은 ‘수치심’을 공동체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Kagan, 2007).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수치심’이 비판이나 모욕, 멸시를 외 부로부터 받았거나 수줍음을 잘타는 성격, 또는 ‘면목 없는’ ‘낮 뜨거운’ 등의 당황감과 연관되어 있었다(남기숙, 조선미, 이훈진, 2006).

또한 문화적 정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서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들을 알아내야 하며 그것이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질적 분석에 해당되는 것으로 Harre와 Gillett(1994), Bruner(1990) 등에 의해 제안된 담론 분석법(discourse analysis)이나 내러티브 분석법, Moscovici(1984)가 제안한 사회적 표상 이론 등에 의해 연구되어 지고 있고, 연구 결과들에 의해 일상의 언어가 심리의 구성은 물론 심리적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차츰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각 국가의 원어민들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당한 상황에서의 문화적 정서 차이

문화에 대한 차이를 논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대상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이다.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과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고 덜 표출할까?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목표 등이 개인행동의 준거가 되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목표나 집단 내 조화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Triandis, 1994). 이러한 특징은 정서의 경험과 표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기주장을 선호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는 집단의 조화와 성취를 위해 개인적 충동을 억제하고 표현을 조절할 것을 주문한다(Triandis, 1990).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서 정서표현은 개인의 내적가치의 표현으로 간주되어 분노나 자부심 등도 거리낌 없이 표현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동정심이나 공감 등 타인중심적 정서(other-oriented)의 표현은 권장되지만 자부심이나 분노 등의 자아중심적(self-oriented) 정서의 표현은 억제된다(Markus & Kitayama, 1991). 왜냐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집단의 조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의 정서표현은 암묵적이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권인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표현의 억제를 장려한다(Wierzbicka, 1994).

하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집단주의 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동일한 집단주

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의 정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표정의 표출 정도와 표정에 따른 얼굴 형태 특징의 차이가 컸다(大坊, 上出, 村澤, 趙, 毛, 高橋, 2007). 실험실에서 불러일으킨 정서(슬픔, 화)를 표현하는 정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얼굴 표정에 자신의 감정을 덜 나타내었으며, 실제로 표현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Lee & Matsumoto, 2011).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정서표현의 차이는 일반적인 표현행동에도 적용되는 듯하다. Beckman-Brito(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5점 만점에 5점) 생각하였고, 반대로 일본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그러한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5점 만점에 1점)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Aubrey(2009)는 미국의 ESL/EFL 영어 수업에 참가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업시간에 보이는 차이를 기술하였는데, 일본인들은 수업시간에 공격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의견을 수업시간에 거의 얘기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한국 학생들은 어떤 문제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쉽게 말하였다. 또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줍음’과 ‘친밀감’의 정서 차이를 조사한 조수진과 이재은(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 나라 중 수줍음은 가장 낮고 친밀감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국, 일본을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동일하게 묶는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세 나라에서는 부당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서 세 나라의 정서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면,

한국의 ‘억울’은 적어도 한국인들이 부당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뚜렷이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주의 내의 문화적 다양성이 생각보다 클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경문화의 전통이 있으며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한국, 중국, 일본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다. 정서표현 외에도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의 기존의 구분으로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심리학 연구들에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의 문화유형은 주로 문화적 자기관(독립적 자기 vs 상호협조적 자기)에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사회적 맥락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개인주의 문화의 개인은 독립적 자기관을 발달시키고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개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발달시켰다는 것이다(Kitayama & Markus, 1991). 그런데, 대표적인 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들(Gudykunst et al., 1996; Leung & Kim, 1997; Singelis, 1994)을 사용한 그 동안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Levine et al., 2003). Levine 등(2003)에 의하면 Markus와 Kitayama(1991)의 이론이 예언하는 서양인(미국인, 캐나다인 및 호주인)과 동양인(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및 대만인) 간의 자기관 차이는 약하고 비일관적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의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 간에는 차이가 없거나(조선영, 이누미야, 김재신, 최일호, 2005), 심지어 한민(2012)의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의 평균은 4.64(.73), 상호협조적 자기의 평균은 4.58(.69)로 독립적 자기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류승아(2009)의 연구에서는 미국 대학생들보다 한국 대학생들의 독립적 자기의 점수가 오히려 높았다.

이누미야와 김윤주(2006) 및 이누미야, 한민, 이주희, 이다인과 김소혜(2007)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의 문화구분에서 비롯된 독립적 자기 대 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이 집단주의 내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을 제안하였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은 집합주의 문화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는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틀로서,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영향력의 방향성 차원을 추가한 새로운 문화적 자기관 모델이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맥락에 대해 설정한 심리적 거리감을 기준으로 자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첫째는 자신을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인식하는지,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는 Markus와 Kitayama(1991)의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와 상호협조적 자기(interdependent self)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의 방향이라는 차원인데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경우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자기개념을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 후자의 자기개념을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라 한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주체성 자기 및 대상성 자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독립적 자기는 자율성 자기(autonomous self)로 명명할 수 있다.

각 자기관 요소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율성 자기는 기존의 독립적 자기의 특성과 일치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 등 주변의 사회적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자신의 지향과 욕구에 따른 행동을 한다. 주체성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율성 자기와 유사하게 자신의 지향성을 중시하며, 내부기원의 준거틀(소원, 이상, 비전 등)에 초점을 맞춘 자기인식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르치고 싶다’, ‘주관하고 싶다’, ‘선도하고 싶다’, ‘주도하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 등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가 강하며, 관계에 있어서 ‘형, 오빠, 언니, 누나, 부모, 선배, 리더’와 같은 역할을 선호한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타인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기현시적 행동양상을 보이며, 자기 자신보다는 외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려 노력한다.

한편 대상성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상대의 지향성을 존중하며, 외부기원의 준거틀(규범, 의무, 기대 등)에 초점을 맞춘 자기인식을 한다. 관계성 욕구 중에서는 ‘배우고 싶다’, ‘모시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보좌하고 싶다’, ‘의존하고 싶다’와 같이 타인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며, ‘동생, 자녀, 후배, 부하’와 같은 역할을 선호한다. 상대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

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자기억제적 행동특성을 보이며,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내부를 향한 통제성을 주로 발휘하려 한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이누미야 외, 2007; Han, Kim, & Inumiya, 2016).

이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중심적 존재로(主體)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주체성 자기가 우세하고, 일본인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객체로서(대상)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수용하고자 하는 대상성 자기가 우세하다(한민, 이누미야, 김소혜, 장웨이, 2009; 이누미야, 2009).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민 외, 2009).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부당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행동 차이

집단주의 문화권 내에 이러한 자기관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평가와 그 사건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고, 그 결과로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 및 대처양식도 다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억울’이라는 정서에 민감한 것은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다시 말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냄으로써 자기를 인식하려는 동기가 강한 한국인들이 부당한 일이나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것일 수 있다. 일본인이 타인의 영향력을 수용하려는 대상성 자기가 우세하다면 부당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더 적게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 자율성이 우세하다고 여겨지는 중국과 본래 개인주의 문화의 전형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도 부당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경험

에 있어서 다른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 김경민과 박동건(2011)의 연구에서 집단주의 성향인 낮거나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조직의 절차공정성이 낮다고 생각될 때에는 친사회적 행동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건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문화적 자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의 정도가 부당함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부당한 사건과 정서 경험 간의 국가 별 차이에 대한 이유와 기제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대안적 자기관 이론으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정서차이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부당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는 문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요소인 인지, 감정, 행동의 측면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부당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관련한 요인들을 감정적 측면(스트레스 정도와 기간)과 행동적 측면(스트레스 대처)에 추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의 정서(특히, 스트레스 관련 요인)차이를 자기관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서 자기관이 문화적 정서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1-1.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의 유형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1-2. 부당한 상황에 대한 감정(감정 유형, 스트레스 정도 및 기간)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1-3. 부당한 상황을 경험한 후의 행동(행동 유형,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각 나라의 문화적 자기관은 부당한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정도, 기간, 대처방법)와 관계가 있을 것인가?

연구방법

연구 대상

한국의 C대학교, 중국의 F대학교, 일본의 N대학교, 미국의 B대학교에서 총 367명(남 146, 여 221)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적별로 한국 97명(남 45, 여 52), 중국 89명(남 40, 여 49), 일본 88명(남 47, 여 41), 미국 93명(남 14, 여 79)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0.21세($SD=2.08$)이었다. 최종 분석은 개방형 질문지의 응답 결과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질문지, 응답하지 않은 질문지, 또는 어느 유형에도 포함할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총 317명의 자료(한국 87명, 중국 71명, 일본 80명, 미국 79명)를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

부당한 사건과 그에 따른 정서 및 행동

유형

부당한 일을 당하는 상황을 기존의 연구(서신화, 이수현, 한민, 2013)에서 사용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예로 든 상황은 다음과 같다.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책임을 들었을 때’ ‘나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꾸중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할 때’ ‘다른 사람이 책임질 일을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할 때’ ‘내가 한 일이 정당하게 평가 받지 못했을 때’. 이후, 응답자가 경험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적도록 지시하였다. 상황을 기술한 이후에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묘사하고, 그러한 감정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쓰도록 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지속기간

자신이 적은 부당한 경험에 대하여 받은 스트레스는 Cohen, Kamarck와 Mermelstein(1983)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얼마나 자주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또는 “얼마나 자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등이 있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70이었다.

스트레스 지속기간은 자신이 겪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날짜 수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

Carver, Scheier와 Weintraub(1989)이 개발한 COPE inventory를 Carver(1997)가 28문항으로 축소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4개의 대처 유형이 2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대처

유형은 Folkman(1984)의 대처 분류에 따라 다시 8개의 정서 중심대처(self-distraction, Denial, Substance use, Use of emotional support, Venting, Humor, Religion, Self-blame)와 6개의 문제 중심 대처(Active coping, Use of instrumental support, Behavioral disengagement, Positive reframing, Planning, Acceptance)로 분류하였다. 척도의 측정은 “전혀 안했음”(1점)에서 “많이 했음”(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2였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척도

이누미야 등(2007)이 개발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SOA)를 사용하였다. 주체성, 대상성 및 자율성에 관한 문항은 각각 6개씩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성 자기의 예시로는 “나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뛰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또는 “나는 남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 등이고, 대상성 자기의 예로는 “나는 리더라기보다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두드러질 때 불편해진다” 등이 있다. 그리고 자율성 자기의 문항으로는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평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주체성 .75, 대상성 .73, 자율성 .63로 나타났다.

개방형 설문지 응답평정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각국의 원어민 및 언어전공자, 해당국가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자문을

받아 각각의 응답들을 평정하고 분류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 버전을 일본어, 중국어, 영어 전공자가 번역하였고, 이후에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원어민의 교정을 받아 수정하였다. 일본과 중국에서 조사한 설문의 응답을 일본어 전공자 및 중국 원어민이 번역하였고, 이를 연구자들이 1차 평정한 후, 의미가 모호하거나 의문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각국의 원어민들에게 자문하여 2차적으로 평정하였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연구자들이 번역한 후, 영어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 2차 평정하였다. 이렇게 평정한 응답들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수료생 1인과 석사과정 학생 1인의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주화되었다.

이후, 부당한 사건에 대한 정서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들과 부정적 정서의 종류와 질, 부정적 정서 뒤에 이어지는 행동들을 유형화하여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사건이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부정적 정서의 종류와 스트레스 정도 및 기간을 국가별로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세 번째 가설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부당한 사건 뒤에 취하는 행동 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기제를 찾기 위해 각 나라의 문화적 자기관이 스트레스의 정도, 기간, 대처방법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 과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의 유형

분석 결과 다음의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전체 사례수를 살펴보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이나 책망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51.4%),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오해했을 때(25.2%)가 두 번째, 자신이 한 일이 노력에 비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가 14.7%로 그 다음이었으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떠맡게 된 경우가 8.5%였다(표 1).

다음으로 국가에 따른 억울 경험 사건 유형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chi^2=50.801$, $p<.001$). 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을 겪은 경우가 한, 중, 일, 미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많았으나, 일본이 71.3%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한국(55.2%)과 미국(45.6%), 중국(31.0%)이 그 다음이었다. 내 의도를 오해한 경우는 미국(39.2%)이 가장 많았고, 중국(29.6%)이 그 다음이었으며, 한국(18.4%)과 일본(15.0%)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한국(17.2%)과 중국(16.9%), 일본(13.8%), 미국

(11.4%)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떠맡은 경우는 중국(22.5%)이 가장 많았고, 한국(9.2%)과 미국(3.8%)이 그 뒤를 따랐으며, 일본은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한 감정

부당한 사건에 대한 감정 유형. 부당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들을 기술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매우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한 2~5개의 감정들을 중복해서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고, 문화적 표현이나 비속어 등을 쓴 경우도 많았다. 일부 국가의 참여자들의 경우 상황만 기술하고 감정에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부당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매우 복합적인 정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상황에 대한 감정은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인지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당혹감과 불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제공한 대상에 대한 분노와 실망, 배신감 등의 관계적 정서와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피하지 못한 자신

표 1. 부당한 사건의 유형과 국가 간 교차 분석

	한국 (%)	중국 (%)	일본 (%)	미국 (%)	전체 사례수	χ^2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손해, 책망)을 받음	48 (55.2)	22 (31.0)	57 (71.3)	36 (45.6)	163 (51.4)	50.801***
사람들이 내 의도를 오해함	16 (18.4)	21 (29.6)	12 (15.0)	31 (39.2)	80 (25.2)	
내가 한 일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함	15 (17.2)	12 (16.9)	11 (13.8)	9 (11.4)	47 (14.7)	
내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떠맡음	8 (9.2)	16 (22.5)	0 (0.0)	3 (3.8)	27 (8.5)	
계	87 (100)	71 (100)	80 (100)	79 (100)		

*** $p<.001$

에 대한 자책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감정들을 분노, 불쾌, 당혹, 관계정서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동아시아 3국의 경우에는 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화적 표현이 별도로 존재하였는데, 한국의 억울과 중국의 wei qu(委屈), 일본의 <やしい(悔しい) 등이었다. 그러나 부당한 경험에서 느낀 감정을 묘사할 때, 한국의 경우 억울이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데 비해(93명 중 40명), 중국은 54명 중 4명, 일본은 두 번째 이후의 응답에서만 7차례 등장했다. 미국은 별도의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억울은 그 자체로 복합적인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연구들(민성길, 1989; 조흥건, 1991; 최상진, 이요행, 1995)에서 분노 및 화와 관련된 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분노로 분류하였다. 각 나라의 원어민들과 논의한 결과, 중국의 wei qu(委屈)은 상황의 부당함 자체에 대한 감정으로 불쾌로 분류하였다. 일본의 <やしい는 부당함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책을 포함한 분노라고 해석되나 첫 번째 감정으로는 기술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미국의 경우에 억울, wei qu, <やしい 등 문화적 개념이라 생각되는 것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가장 강렬하게 느낀 감정을 제일 앞에 썼을 것이라 가정하여 제일 앞에 쓴 감정 하나를 바탕으로 국가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감정의 유형과 국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분노에서는 한국(억울)이 가장 많았고(58.1%), 불쾌감에서는 중국(31.5%)이, 당혹의 정서에서는 일본(19.8%)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실망감, 배신감, 슬픔 등의 관계적 정서는 중국(35.2%)이 가장 많았다. 요약하자면,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분노 위주의 감정, 중국은 불쾌와 관계적 정서, 일본은 분노와 당혹감, 관계적 정서 등이 혼재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와 기간.

다음으로, 부당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와 지속 기간의 차이를 성별과 연령을 통제 한 후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3).

자신의 부당한 경험이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는 한국 및 일본에 비해 중국이 낮았으며 ($F=9.163$, $p<.001$), 스트레스가 지속된 기간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의 편차가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2. 부당한 사건에 대한 정서 유형과 국가 간 교차 분석

	한국 (%)	중국 (%)	일본 (%)	미국 (%)	χ^2
분노	54 (58.1)	13 (24.1)	36 (44.4)	37 (49.3)	25.595**
불쾌	15 (16.1)	17 (31.5)	12 (14.8)	12 (16.0)	
당혹	9 (9.7)	5 (9.3)	16 (19.8)	13 (17.3)	
관계정서	15 (16.1)	19 (35.2)	17 (21.0)	13 (17.3)	
계	93 (100)	54 (100)	81 (100)	75 (100)	

** $p<.01$

표 3. 부당한 사건의 경험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국가별 차이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전체 평균 (표준편차)	F
스트레스 기간(일)	17.04 (47.25)	11.38 (52.23)	8.01 (20.99)	5.04 (12.59)	10.95 (36.90)	1.474 [†]
지각된 스트레스	2.01 ^a (.53)	1.82 ^b (.50)	2.13 ^a (.40)	2.25 ^a (.38)	2.06 (.48)	9.163 ^{***}

[†] $p < .10$, ^{***} $p < .001$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임.

부당한 상황을 경험한 후의 행동

부당한 사건의 경험 후의 행동 유형. 부당한 사건에 대한 행동 반응은 크게 무행동, 간접토로, 직접토로의 세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무행동은 부정적 감정에 불구하고 참거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고, 간접토로는 억울한 경험을 한 당시에는 별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당시의 감정을 토로하고 정서적 지지를 호소하는 종류의 행동들이며, 직접토로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의 행동들을 뜻한다. 국가에 따른 행동유형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본(72.6%)이 가장 많고, 한국(59.6%), 중국(49.3%), 미국(26.6%)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지인이

나 가족에게 하소연(토로)하는 경우는 미국(19.0%)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14.1%), 한국(10.6%), 일본(6.0%) 순으로 나타났다. 화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직접토로는 미국(54.4%)이 가장 많고, 중국(36.6%), 한국(29.8%), 일본(21.4%)의 순이었다.

부당한 사건의 경험 후의 스트레스 대처.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정서중심대처의 경우, 미국($M=2.33$)이 가장 높았고, 중국($M=2.09$)과 한국($M=2.03$)이 그 다음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본($M=1.84$)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F=21.233$, $p < .001$). 문제중심대처의 경우, 중국($M=2.83$)이 가장 높았고 미국($M=2.65$)과 한국($M=2.52$)이 그 다음으로 비슷한 수준이었

표 4. 부당한 사건 경험 이후의 행동유형과 국가 간 교차분석

	한국 (%)	중국 (%)	일본 (%)	미국 (%)	χ^2
무행동	56(59.6)	35(49.3)	61(72.6)	21 (26.6)	37.303 ^{***}
간접토로	10(10.6)	10(14.1)	5(6.0)	15 (19.0)	
직접토로	28(29.8)	26(36.6)	18(21.4)	43 (54.4)	
계	94 (100)	71 (100)	84 (100)	79 (100)	

^{***} $p < .001$

표 5.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의 국가별 차이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전체 평균 (표준편차)	F
정서중심대처	2.03 ^b (.45)	2.09 ^b (.34)	1.84 ^c (.41)	2.33 ^a (.34)	2.07 (.43)	21.233 ^{***}
문제중심대처	2.52 ^b (.48)	2.83 ^a (.40)	2.23 ^c (.52)	2.65 ^{ab} (.41)	2.55 (.50)	13.860 ^{***}

*** $p < .001$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임.

으며, 일본($M=2.23$)이 가장 낮았다($F=13.860$, $p < .001$).

문화적 자기관과 부당한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관계

국가별 문화적 자기관. 문화적 자기관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의 국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나이를 통제하고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주체성은 중국($M=4.56$)과 한국($M=4.52$)이 높았으며 일본($M=4.06$)이 가장 낮았다. 미국($M=4.32$)은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F=3.121$, $p < .05$). 대상성은 일본($M=4.27$)과 한국($M=4.12$)이 높고 미국($M=3.73$)이 가장 낮았

으며, 중국($M=3.99$)이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F=4.570$, $p < .01$). 자율성은 중국($M=5.12$)이 가장 높았고, 미국($M=5.09$)과 한국($M=4.79$)이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일본($M=4.52$)이 가장 낮았다($F=7.407$, $p < .001$).

국가별 문화적 자기관과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관계.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기간,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한국의 경우,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율성과 부적 상관($r = -.205$, $p < .05$)을 보여, 자율성 자기가 높은 한국인들은 부당한

표 6.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의 국가별 차이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전체 평균 (표준편차)	F
주체성	4.52 ^a (.99)	4.56 ^a (.92)	4.06 ^b (.99)	4.32 ^{ab} (.57)	4.36 (.90)	3.121 [*]
대상성	4.12 ^a (.85)	3.99 ^{ab} (.90)	4.27 ^a (1.12)	3.73 ^b (.85)	4.03 (.95)	4.570 ^{**}
자율성	4.79 ^{bc} (.83)	5.12 ^a (.88)	4.52 ^c (.87)	5.09 ^{ab} (.56)	4.87 ^a (.82)	7.407 ^{***}

* $p < .05$, ** $p < .01$, *** $p < .001$,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임

표 7. 주체성, 자율성, 대상성과 역울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국가별)

		1. 주체성	2. 대상성	3. 자율성	4. 스트레스	5. 기간	6. 정서중심
2. 대상성	한국	-.418***					
	중국	-.505***					
	일본	-.157	1.000				
	미국	-.473***					
3. 자율성	한국	.174†	.049				
	중국	.447***	-.189†				
	일본	.079	-.024	1.000			
	미국	.533***	-.519***				
4. 스트레스	한국	-.076	.052	-.205*			
	중국	-.284**	.228*	-.388***			
	일본	.079	.220*	-.001	1.000		
	미국	.026	.127	-.209*			
5. 기간	한국	-.003	-.047	-.020	.419***		
	중국	.081	-.185	.151	.026		
	일본	.119	-.098	.251*	.162	1.000	
	미국	-.033	.083	.055	.291*		
6. 정서중심	한국	.240*	-.082	-.136	.427***	.232*	
	중국	-.050	.027	-.327**	.449***	.024	
	일본	.246*	.068	-.065	.128	.129	1.000
	미국	.004	.101	-.088	.321**	.139	
7. 문제중심	한국	.250*	-.073	.030	.187†	.336***	.569***
	중국	.244*	-.058	.402***	-.371***	.140	-.058
	일본	.326**	.037	.119	.060	.174	.600***
	미국	.352***	-.092	.230*	-.100	.215	.15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사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는 정서중심대처($r = .240$, $p < .05$)와 문제중심대처($r = .250$, $p < .05$) 모두에서 주체성 자기와의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다. 이는 주체성 자기가 높은 사람들은 문제중심대처도 많이 하지만, 정서중심대처 또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중국,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체성 자기와 부적상관($r=-.284, p<.01$), 대상성자기와 정적상관($r=.228, p<.05$), 자율성자기와는 부적상관($r=-.388, p<.001$)을 보여주었고, 이는 자율성 자기와 주체성 자기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다는 것이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은 기간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스트레스 대처의 경우, 자율성 자기가 낮을수록 정서중심대처를 더 하였고($r=-.327, p<.01$), 주체성 자기($r=.244, p<.05$)와 자율성 자기($r=.402, p<.001$)가 높을수록 문제중심대처를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대상성 자기가 높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20, p<.05$). 한편, 스트레스 대처는 정서중심대처($r=.246, p<.05$)와 문제중심대처($r=.326, p<.01$) 모두에서 주체성 자기가 높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율성 자기와 부적상관($r=-.209, p<.05$)을 보였으며, 스트레스를 받은 기간과는 정적인 상관($r=.291, p<.05$)을 나타내었다. 스트레스 대처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체성 자기($r=.352, p<.001$)와 자율성 자기($r=.230, p<.05$)가 높을수록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논 의

지금까지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는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 이유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기주장을 선호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는 집단의 조화와 성취를 위해 개인적 충동을 억제하고 표현

을 조절할 것을 주문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내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Triandis, 199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에 속하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방식의 정서 유형이나 표현, 행동양식을 보이지는 아닐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이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부분과 이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모든 국가에서 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을 겪었을 때라고 응답했으나 그 응답비율은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이었다. 즉, 일본인의 경우는 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을 겪었을 때를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였다. 부당한 사건에 대한 감정표현과 행동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런 경우 분노를 드러내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직접적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중국은 상황 자체에 대한 불쾌를 가장 많이 표현하였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으나 문제중심의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상황에 대한 분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초조)는 당혹의 감정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가장 적었다. 미국은 분노를 가장 많이 드러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며, 이 상황과 스트레스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신화, 허태균과 한민(2016)의 연구에서처럼, 한국인에게 억울은 부당한 사건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지만 사회적 관계나 역할 때문에 이를 표출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 경험되는 정서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른 나라사람들도 부당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을 느끼지만 그러한 감정의 종류와 표현, 스트레스의 지각과 대처에 있어 차이를 보였

다. 중국인들은 부당한 상황에 대해 덜 스트레스를 받는데다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미국인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소의 노력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같다. 일본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타인의 기분을 거스르는 일을 꺼리는 일본의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둘째,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이 아닌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이론을 적용해 본 결과, 한국은 주체성과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율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 주체성이 높았을 때 문제중심의 대처를 높게 하였다. 즉, 자율성과 주체성이 부당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및 대처 유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주체성이 높은 한국인들은 정서중심의 대처 또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한국인에게 미치는 주체성의 역할이 특별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의 경우에도 자율성과 주체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특성이 낮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높은 문제 중심 대처와 긍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율성이 높은 중국인일수록 정서중심 대처를 덜 한다는 점을 보면, 중국인들에게는 자율성이 부당한 경험과 관련한 인지, 정서 및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국가관이라고 여겨진다. 부정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결과 역시 중국의 자율성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은 기존의 연구들(이누미야 외, 2006; 한민 외, 2009)과 유사하게 대상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대상성이 부당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율성이 일본인들에게는 스트레스의 기간이 높은 것과 관련되었다. 부당한 사건으로 스트레스는 받지만 해소를 위한 행동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타인 지향의 대상성 자기의 우세와 관련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대상성 자기에 대하여 보다 더 연구해 볼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문화적 자기관과 스트레스의 관계가 중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율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하였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더불어 고려하면 미국은 자율성 자기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셋째, 한국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는 중국, 일본에 비해 한국은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고 해소노력도 크지만 그 표현이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은 부당한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억울이라는 문화적 개념으로 표상하고 있으며 문화에서 억울과 화병, 자살 등과의 관련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들은 ‘억울’이라는 문화적 정서를 발달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화병과 자살 등을 초래할 만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심리적 특성은 정서표현 억제라는 개념으로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즉, 한국인들은 직접적인 정서표현이 규제되는 문화적 속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르는 부정적 정서들을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억제하거나 ‘억울’이라는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관계를 해칠 위험성

이 큰 분노 정서는 억제하려는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병리적인 현상으로까지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에서 억울하다는 말은 자신이 부당한 일로 말미암아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려는 의도로도 사용된다.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는 강한 정서표현규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출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자기관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주체성 자기가 발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자기인식의 준거가 내부(소원, 이상 등)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자신의 외부를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난다(이누미야, 2009).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보면 주체성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인식의 동기가 제한되는 상황을 접할 때 이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이 입은 손해를 실제보다 크게 지각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억제하기 보다는 외부로 알려 손상된 가치나 자신이 믿는 진실을 회복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인들은 주체성 자기가 높은 경우에 정서중심, 문제중심 대처를 모두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인들의 억울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억울은 가급적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제3자에게라도 토로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 문화로서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는 표현규칙을 갖고 있으나 억울만큼은 반드시 토로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서신화 외, 2016). 한국인들이 이러한 행위양식을 발달시킨 것은 주체성 자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하나의 문화적 정서에 대한 질적 연구가 아니라 보편적 상황에 대한 정서의 문화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문화적 정서를 유발하는 고유한 문화적 맥락들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다. 특히 문화적 정서에 대한 표현과 반응 등을 4개 국어를 교차번역하고 평정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각 언어의 원어민과 2개 국어 사용자(bilingual), 번역자 등의 도움으로 설문의 응답을 최대한 유형화, 구조화하였고, 수차례 평정자 간 토의를 통해 비교의 차원을 일치시키려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의미있는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화시킬 만큼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제한이 있다. 연령대, 사례수를 확대한 추가 연구가 실시된다면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집단주의 국가들의 문화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이론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차례 적용된 바 있으나, 보다 설명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집단주의 문화의 나라들 또는 개인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민, 박동건 (2011). 개인주의 집단주의와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 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4), 395-413.
- 김정운 (2001). 관계적 정서와 문화적 정서: 정

- 서의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89-407.
- 김효창 (2010). 자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65-178.
- 남기숙, 조선미, 이훈진 (2006). 한국어 단어를 기초로 한 수치심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1063-1085.
- 류승아 (2010).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69-183.
- 민성길 (1989). 화병의 개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4), 604-616.
- 서신화, 이수현, 한 민 (2013). 억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 미발표 논문.
- 서신화, 허태균, 한 민 (2016). 억울 경험의 과정과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643-674.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9).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115-146.
-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환상의 한일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9-34.
-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 민, 이주희, 이다인, 김소혜 (2007).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7-34.
- 이시형 (1977). 화병에 대한 연구. 고의, 1(2), 63-69.
- 이시형, 조소연, 이성희 (1989). 울화병으로서의 화병 형성 기전. 고의, 12, 151-156.
- 조선영, 이누미야, 김재신, 최일호 (2005).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공적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49-60.
- 조수진, 이재은 (2015).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한, 중, 일 대학생들 간의 정서차이에 관한 연구: '수줍음'과 '친밀감'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5(1), 57-64.
- 조흥건 (1991). 스트레스병과 화병의 한방치료. 서울: 열린책들.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이요행 (1995). 한국인 화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호, 327-338.
- 한 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 한 민 (2012). 한국인의 문화적 자기관(한국인 마음지도 연구자료 중). 미발표 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DC:Author.
- Aubrey, S. (2009). A cross-cultural discussion of Japan and South Korea and how differences are manifested in the ESL/EFL classroom. *Asian Social Science*, 5, 34-39.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45-1160.
- Averill, J. R. (1985). The social construction of

- emo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love. In K. J. Gergen & K. E. Davis(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pp.89-109). New York: Springer.
- Beckman-Brito, K. (2003). Classroom Etiquette: A cross-cultural study of classroom behaviors. *Arizona Working Paper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eaching*, 10, 17-34.
- Bruner, J. S. (1990). *Acts of meaning*.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ck, R. (1988). *Human motivation and emotion* (2nd ed.). New York: Wiley.
- Carver, C. S.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s too long: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92-100.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24, 386-396.
- Ekman, P. (1972). *Universal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In J. Col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1.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39-852.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dykunst, W. B., Matsumoto, Y., Ting-Toomey, S., Nishida, T., Kim, K., & Heyman, S. (1996). The influence of cultural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 construals, and individual values on communication styles across cultur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 510-543.
- Han, M., Kim, H., & Inumiya, Y. (2016). Differed self within collectivist culture: Introducing and alternative self-construal theory. *Studies in Asian Social Science*, 3, 37-53.
- Harre, R. (Ed.). (1986). *The 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s*. Oxford, England: Balckwell.
- Harre, R., & Gillett, G. (1994). *The discursive mind*. London: Sage.
- Kagan, J. (2007). *What is Emotion: History, measures, and meaning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itayama, S., & Markus, H. M. (1994).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azarus, R. S. (1984). On the primacy of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24-129.
- Lee, Y. J., & Matsumoto, Y. (2011). Emotional display rules of Japanese and Koreans. *Shinrigaku Kenkyu*, 82, 415-423.
- Leung, T., & Kim, M. S. (1997). *A revised self construal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onolulu.
- Levine, T. R., Bresnahan, M. J., Park, H. S., Lapinski, M. K., Wittenbaum, G. M., Shearman, S. ... Ohashi, R. (2003). Self-Construal Scales Lack Valid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 210-252.
- Lutz, C. (1982). The domain of emotion words on Ifaluk. *American Ethnologist*, 9, 113-128.

- Lutz, C. (1988). *Unnatural emotions: Everyday sentiments on a Micronesian atoll and their challenge to Western theor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uro, R., Sato, K., & Tucker, J. (1992). The role of appraisal in human emotions: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301-317.
- Mesquita, B., & Frijda, N. H. (1992). Cultural variation in emotion: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2, 170-204.
- Moscovici, S. (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M.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69.
- Shachter, S. (1971). *Emotion, obesity, and crime*. New York: Academic Press.
- Shweder, R. A. (1993). The cultural psychology of the emo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 (pp.417-431). New York: Guilford.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 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Tomkins, S. S. (1984). Affect theory. In K. R. Scherer & P. Ekman(Eds.), *Approaches to emotion* (pp. 163-19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Eds.),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41-133).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Wierzbicka, A. (1994). Emotion, language, and cultural scripts. In S. Kitayama & H. R.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 (pp.133-19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ierzbicka, A. (1995). Emotion and facial expression: A semantic perspective. *Culture and Psychology*, 1, 227-258.
- Zabinsky, B., & Valsiner, J. (2004). *Affective synthesis of the other through the self: A new look at empathy*. Paper presented at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logical Self, Warsaw, Poland, Aug. 28.
- 大坊 郁夫, 上出 寛子, 村澤 博人, 趙 鏞珍, 毛新華, 高橋 直樹 (2007). 顔形態特徴の日中韓比較(1): 顔面表情に伴う顔形態の文化比較 (対面コミュニケーション-顔を中心的メディアとした). 電子情報通信学会技術研究報告, HCS, ヒューマ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基礎, 107(241), 13-18.

논문 투고일 : 2018. 02. 20
1 차 심사일 : 2018. 02. 27
게재 확정일 : 2018. 05. 14

The difference of cultural emotions in unfair situation in Korea, China, Japan, and the U.S.

Min Han

Woosong University

Seungah Ryu

Kyungnam University

There could be different ways of perception, emotions, and behaviors facing on unfair situation according to the culture background by which people have been affected. We investigated whether definition, feelings, and behaviors in 4 countries (Korea, China, Japan, and the US) would differ in terms of unfair situations. We furth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self-construal model (subjectivity-objectivity-autonomy model) and behaviors resulted from unfair situations. Three hundred seventeen participants (87 Koreans, 71 Chinese, 80 Japanese, and 79 Americans) took part in this research. We found that all countries defined unfair situation as “having a disadvantage or blame that one did not done by him or her” with the highest percentage, but there was a different percentage according to countries. Next, Chinese felt disappointment or betray from the situations highly while others expressed anger with the largest portion. In the area of behaviors, three countries in Asia answered “no behaviors” with the highest percentage while Americans mostly responded “direct expressions”. In terms of self-construal model, subjective self was high in Chinese and Koreans while autonomy was high in Chinese and American. Japanese showed objective self with the highest.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Eogul’, cultural emotion, self-construal, coping, subjectivity-objectivity-autonomy model